

## 정전

지난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을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소식들이 들렸다. 눈 때문에 받은 어려움들이다. 그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넓은 지역에 정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보통 정전은 몇 시간이면 해결이 되어 다시 불이 들어왔지만 어떤 지역은 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가정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 샤워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먹을 것을 만들지 못해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샤워 하도록 오픈(Open) 할 수도 없는 형편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보다 더 큰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음식점과 마켓이 당하는 어려움이다.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게에는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럿 인 것이 분명한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그 음식들을 다 버려야하기 때문이다. 돈으로 따지면 아마 수 천불정도는 적은 손해일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될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울 텐데 또 다른 어려움으로 허덕이게 생겼다. 그리고 나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좋아 할 수 없었다. 정말 다행이라고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내 집과 내 가게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 것조차도 미안하고 괴로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실은 몇 주 전 내가 일하는 가게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큰 나무가 쓰러지며 전깃줄을 망가트려 거의 하루 동안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 때 냉장고와 냉동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할 것 같아 발을 동동 굴렀기 때문이다.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잘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가 겪었고 또한 겪는 것 그 이상을 대신 겪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괴로움, 외로움, 고통과 걱정을 전부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시다. 나를 만드시고 또한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나와 함께 동행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7-8절)라고 하셨다.

지금 내가 살아가며 당하고 있는 기쁨도 아시지만 어려움도 전부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정전이 된 인생에 성령이 불로 다시 켜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기쁨과 행복을 덩으로 주실 것을 믿는다.